

전략형 공군의 건설과 항공우주분야 소요

공군전투발전단장 이진학 준장



순서

1. 서론
2. 미래전양상
3. 전략형공군건설방향
4. 항공우주분야 소요분석
5. 결론

1. 서론

항공력이 주축이된 정보력과 정밀타격력, 그리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C'I 체계의 통합적 운용으로 "깨끗한 전쟁(Clean war)"의 표본을 보인 걸프전은 미래전의 양상을 잘 보여준 동시에 미래전력을 구축해야 하는 군사전문가들에게 많은 과제들을 남겨 주었다. 이에따라 우리 공군도 미래한반도 전략환경과 위협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형 공군력의 건설에 총체적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낙후와 막대한 투자비 소요로 독자적 개발기반이 취약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전략무기 수출제한 협정 등으로 인해 군사력의 자주적인 운용여건을 갖추기가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해서는 첨단무기의 자체 생산과 운영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으로서도 국내 전체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군 소요를 주요 근간으로 발전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소요의 제기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관련정책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부나 산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나 개발의지를 유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형 공군력의 건설 규모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소요를 예측 및 분석함으로써 좀더 장

기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국내 항공우주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단, 여기서 새롭게 제시된 자료들은 필자의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결과임을 부연한다.

2. 미래전 양상

오늘날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21세기의 군사환경을 주도할 핵심적인 요소중의 하나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들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공학 생명공학, 분자세포학 등 각 분야별 첨단과학기술들은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각 분야간 수평연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롭게 발전하는 초미세공학/기계전자공학 등과 결합함으로써 21세기가 명실공히 지식 창조 사회로 진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초반의 20년 동안 인류가 성취할 발견/발명의 양이 유사 이래 현재까지의 업적보다도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군사측

면에서 무기체계의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크게 변모시킬 것이다.

21세기의 또하나의 특징인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쟁수행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다. 과거 대량파괴/대량살상 주류를 이루었던 전쟁 패러다임은 정밀타격/최소파괴로 바뀌었으며, 기동화력 위주의 전력운용도 통합 정보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전쟁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 추세의 영향을 받아 정보화 전쟁, 첨단 정밀과학전, 그리고 우주까지 전장이 확대되는 우주전의 양상으로 특징지을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전쟁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기술 그리고 관련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한 정보기술은 매 10년마다 1000배 이상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기술은 전장에서 적의 핵심목표를 정확히 식별하고, 식별된 목표에 대한 즉각적인 정밀타격을 가능케 함으로써, 과거 전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선형전투방식을 전·후방 전략적/작전적 중심을 동시에 파괴하는 비선형 입체전투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군인의 유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과거의 군인은 근

육질의 강한 신체 그리고 지형을 해독하고 개인무장의 숙달여부가 중요한 요소였으나 정보화 전쟁에 대비하는 군인은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육지 및 바다에서의 전장우세를 추구했던 근대전쟁, 그리고 공간에서의 전장우세를 추구했던 현대전쟁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정보영역에서의 우세를 추구하는 미래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그림.1).

우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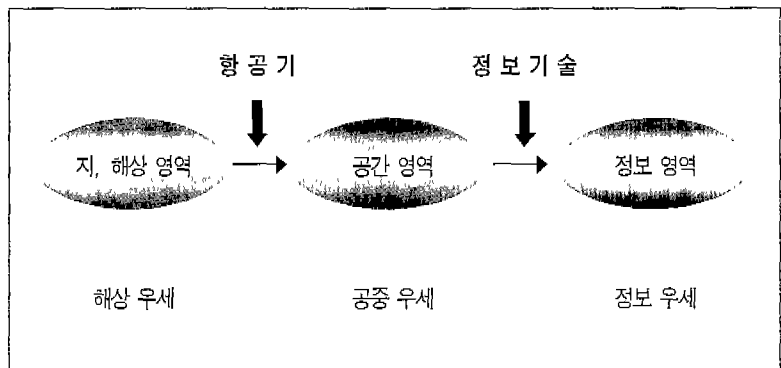
우주영역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전장으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우주과학의 발전속도가 미치지 못하여 실용화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주영역이 정보의 주축득원으로 부상하면서 정보화 전쟁의 최일선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우주는 각종 전장정보의 중계소일 뿐만아니라 정밀무기의 핵심부품인 GPS용 위성

의 운용, 그리고 각종 통신/정찰 위성이 사용됨으로써 이미 전장의 일부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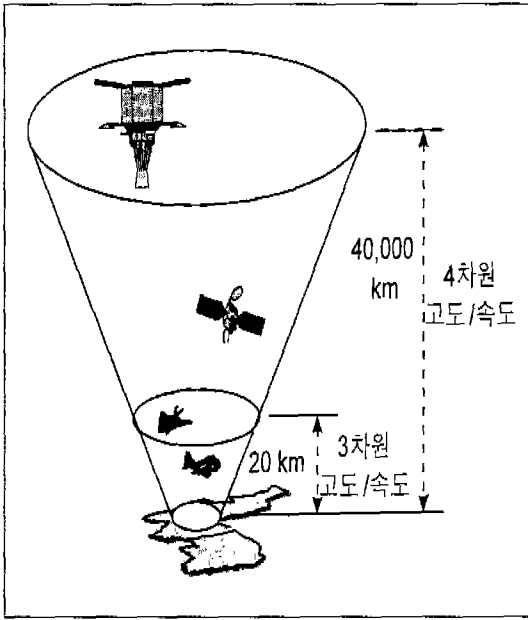
이제까지 항공기가 활동할 수 있는 항공영역이 3차원의 고도와 속도, 그리고 체공시간의 한계성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면, 우주영역은 4차원의 고도와 속도, 그리고 지속성의 특징까지 갖춘 전장이라 할 수 있다(그림.2). 따라서 우주영역은 머지않아 단순한 정보수집의 목적 이외에도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타격체계, 우주폭탄, 우주미사일 등 다양한 우주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라 전장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첨단 정밀과학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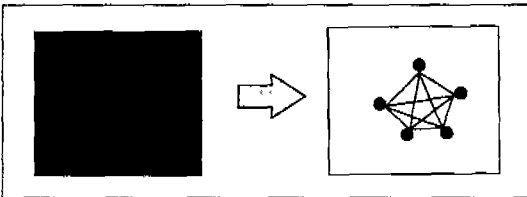
정보화 전쟁의 양상은 전장관리체계의 혁신을 가져왔다. 과거의 전장관리는 대형 폭격기에 의해 무차별로 폭탄을 투하하는 융단폭격으로 상징되듯이 매우 비경제적이



〈그림 1〉 전장 우세 개념의 진화



〈그림 2〉 전장영역의 우주화



〈그림 3〉 정보화에 따른 전장면적 변화

〈표 1〉 정밀 타격능력의 진화

구분	기종	출격횟수	투탄갯수	탄착오차
2차 대전	B-17	4,500	9,000	3,300feet
한국/월남전	F-84/F-105	95	190	400feet
걸프전	F-16	?	30	200feet
	F-117	1	1	10feet 이하

〈표 2〉 작전 템포의 진화

구분	독립전쟁 (1776~'83)	남북전쟁 (1861~'65)	2차대전 (1939~'45)	걸프전 (1990~'91)	미래전	
전 장 체 계	정보수집	망원경	전신/전보	유선/무선	준 실시간	실시간
	정보의 지식화	수 주	수 일	수시간	수 분	지속적
	결정/지시	수개월	수 주	수 일	수시간	즉 시
	행동	한계절	1개월	1주	1일	1시간 이내

고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반하여 발전된 전장 관리 체계는 수집된 첩보를 분석, 융합하여 적의 의도와 적의 중심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전장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3).

첨단 무기체계의 등장은 이렇게 최소화된 전장지역에 집중적이고도 정확한 타격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량파괴와 살상으로 얼룩진 과거 전쟁과는 달리 “깨끗한 전쟁(clean war)”이라

는 새로운 전쟁형태를 가능케 하였다(표.1). 또한 센서의 발달과 지휘통제체계의 발달은 감지에서부터 발사에 이르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전의 탬포 증가와 공격효과와 향상을 가져왔다(표.2).

이와같이 첨단과학에 의한 발전된 전장관리체계는 전장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첨단 정밀과학전이라는 미래전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미래전 양상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군의 전력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구소련의 군사이론가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던 “군사혁신(MTR)”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전력구조의 개혁을 주도하는 이론으로서, 정보화 전쟁 환경하에서 첨단과학 무기를 이용한 실시간 정밀타격능력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초 각국의 군사력은 이러한 군사혁신의 물결을 타고 첨단항공/우주 무기체계에 비중을 둔 새로운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3. 전략형 공군력 건설 방향

전략형 공군력이란 미래 전장환경에서 공군력의 특성

인 고도, 속도, 거리, 융통성을 기반으로 군사전략적 임무를 효율적이고도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공군이 추진해온 발전목표이다.

전략형 공군의 건설을 위해 공군은 과거 전술적 개념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미래의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주변국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공군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신규 소요전력의 제기 및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소요의 산출 배경과 성격을 기술하고자 한다.

21세기 한반도 안보환경

한반도는 예로부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량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은 물론, 양대 세력간의 격전장이 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물류의 중심지로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21세기에는 동북아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더욱 역동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 형성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경제 발전 기반하에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이 지역에서는 분단국 문제, 일본 북방 4개 도서, 남사군도 등의 영토문제, 해양 관할권 문제, 민족 문제, 환경 문제 등의 많은 갈등요인이 산재해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갈등요인으로는 베타적 경제수역 확정에 따른 문제, 대륙붕의 자원 개발권 및 어로분쟁, 일부 도서지역의 관할권 및 통일후 백두산과 두만강의 국경선 문제 등이 잠복해 있다.

군사전략 목표

한반도에서의 1차적인 군사전략 목표는 주변 강대국의 전쟁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방위 충분성 전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시에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주요 전략적 거점을 포함하는 지역, 즉 감시권에 대하여 감시와 조기경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이지역에 대한 선별적 타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분쟁시에는 소수 정예전력으로 신속대응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며, 전쟁시에는 국가 총력전으로 적의 공세를 차단하고 영토내를 진입한 적을 격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군의 역할

여기서는 미래전 환경하에서 국가적인 군사전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 군의 역할을 비교 조명함으로써 전략형 공군의 역할과 요구능력의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미래전에서는 과거와 같이 영토를 침범하여 식민지를 만드는 방식은 지양될 것이다. 대신에 상대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타격하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해안도서 등을 일시 점령내지는 무력화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할 것이다.

따라서 전장지역에 대한 조기경보/감시 및 실시간 전장관리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다행히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중을 통한 감시와 조기경보 여건이 용이하므로 방어적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즉 방어적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의 개념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해상 침투세력에 대해서는 항공력을 이용한 격퇴가 용이하며, 해상을 통한 공중 침투세력에 대해서도 체공시간의 상대적 우위를 가질수 있다. 이러한 방어개념하에서 각 군의 역할을 비교해 보자.

먼저 각군의 공간적 임무 영역을 비교해 보면(그림.4), 전장관리능

기고 정책

력의 중요성을 감안시, 공중을 통한 임무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지대함을 알 수 있다. 각군의 시간적 임무비중 측면에서도, (그림.5)에서 보는바와 같이, 평시와 분쟁시에 공군력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군력의 증강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략형 공군의 건설은 한

반도에서의 군사전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상군에 비해 전략적인 군사력 운용이 용이한 공군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군전력 요소별 요구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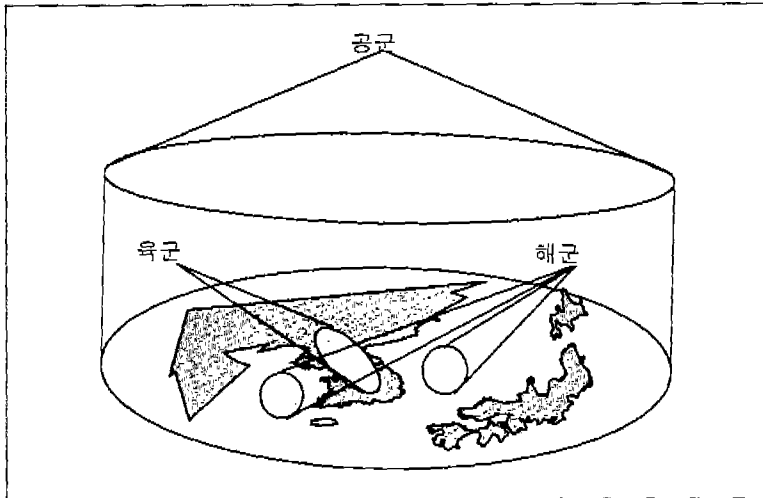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전략형 공군이 갖춰야할 능력은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성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현 보유전력의 고려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보화 전쟁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고 전장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감시권내 전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위성체계와 공해상 및 영토권내에서 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유 무인 정보수집기 및 공중 조기경보통제기가 요구된다. 또한 외부에서 침투하는 물체(항공기, 미사일, 선박등)를 영토권 밖에서 탐지 및 식별할 수 있는 지상레이다가 확보되어야 한다(그림.6).

다음으로는 실시간 전장관리 체계에 걸맞는 새로운 C4I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C4I 체계는 영토권뿐만 아니라 감시권내의 일부지역까지 임무 계획 및 작전통제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그림.7).

전투전력으로는 전략적 억제전력으로서 선별적 타격이 가능한 소수의 정예공격 편대군과 적의 공중침투 예상전력의 약 80%에 해당하는 방위층 분성 방공전투기, 그리고 영토권내의 지상전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격전투



<그림 4> 각군의 공간적 임무영역

공군		
해군		
육군		
평시	분쟁시	영토권내 결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 및 조기 경보 ○전략적 억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 대응전력 운용 ○전쟁 확대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 해결 실패 (패전 단계) ○미래전에서 발생 가능성 희박

<그림 5> 각군별 시간적 임무수행

기가 요구된다. 미사일은 침투하는 항공기 및 미사일에 대하여 영토권 외곽에서 1차 교전이 가능한 수준의 지대공 미사일과 상대국에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지대지 미사일이 요구된다.

전투지원전력으로는 감시관까지 공격편대군의 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를 비롯하여 영토권 및 일부감시권에 대한 전술정찰, 전자전, 공수 및 탐색구조를 위한 전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4. 항공우주분야 소요분석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전략형 공군의 요구능력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신규소요를 향후 2050년까지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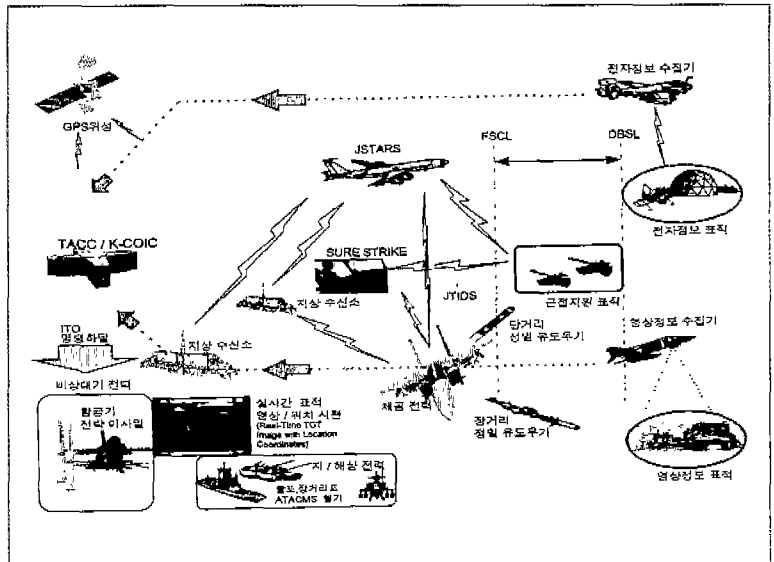
항공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역시 항공기일 것이다. 우선 전투기의 경우에는 매10년마다 약 백대 수준의 소요가 예상되며, 여기에는 고성능 침단 전투기 및 경량 전투기 소요가 포함되어 있다. 수송기의 경우에는 150대 정도의 대형 및 중형기가 소요된다.

탑승객 수가 10-20인 규모의 컴퓨터기 소요도 150여대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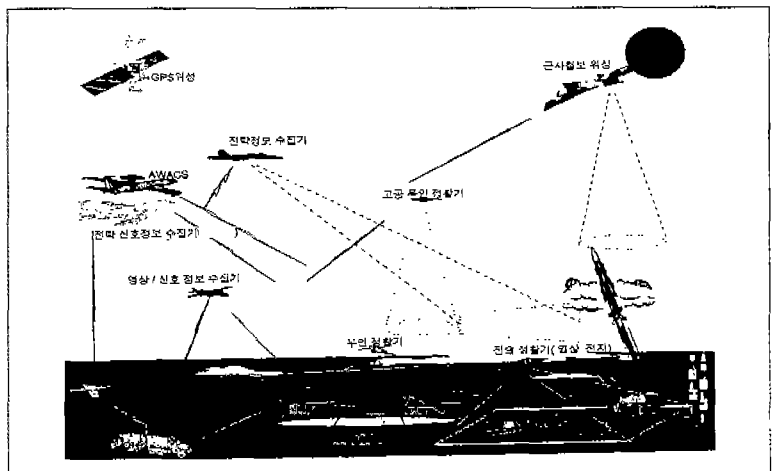
주목할만 하며, 여기에는 통신 및 전자교란기, 전술정찰기, 전자정보수집기, 임무연락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헬리콥터의 경우는 약 100대 수준의 소요가 예상되나 여기에는 육군과 해군소요까지 합하면 1천여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2050년까지 공군의 항공기 총소요는 1천대 수준이며(그림.8) 육군과 해군소요까지 합치면 이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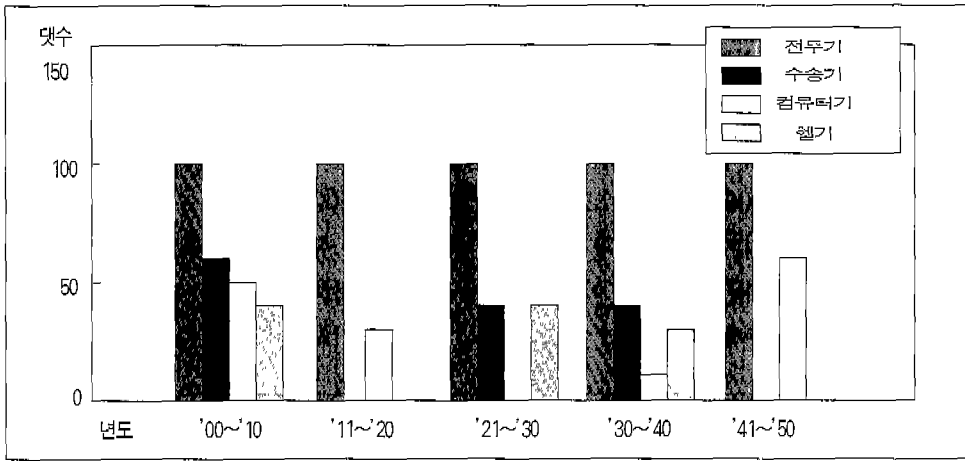
유인기 이외에도 향후 요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기의 소요는 수천대에 이를 것이



〈그림 6〉 전장 감시체계



〈그림 7〉 실시간 전장관리를위한 C4체계



(그림 8) 공군의 정기항공기 수요 전망

며, 여기에는 지상사격을 위한 표적용에서부터, 장·중 단거리 정찰기, 대공제압용 공격기, 전투기 수준의 첨단 무인전투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2050년까지의 국내 항공기 수요의 경제규모는 대략 500억불에 이를 것이며 이중 항공기에 탑재하는 항전장비 및 무장의 소요만도 대략 150~2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사일 및 위성체계

유도 미사일의 경우 향후 50여년간 수요는 수천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지대공 미사일이 주종을 이루며 소량의 전략적 지대지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전쟁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위성체계의 경우에

는 한반도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략 20대 수준의 정찰 위성이 필요한데, 정찰 위성의 수명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할 때 향후 50년간 최소 200대 이상의 신규소요가 예상된다. 물론 이 같은 정찰위성의 소요는 순수한 군사목적 이외에도 민간 및 외국의 수요까지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기간중에 총 10대 수준의 민·군 겸용의 통신위성 수요가 예상된다.

운영체계/소프트웨어

정보화된 전장체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운영체제도 고도의 전산화된 체계로의 변신이 불가피하다.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C₄I 체계를 비롯하여 군수, 정비, 인사, 행정 등 전 분야의 전산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간

의 연동성을 위한 통합분야도 점차 비중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다양하고 예측기 어려운 미래전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운영체계를 유

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량과 개발 작업이 요구된다.

군사 교육훈련분야는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혁신의 주요분야중 하나이다. 새로운 첨단 무기체계는 더욱 지적이며 숙달된 운용요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키 위해 최근 군사교육 훈련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분야의 적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기를 비롯한 탱크, 차량, 군함 등의 주요 무기체계를 비롯한 모든장비는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를 필요로 할 것이며, 군사훈련을 모의하는 "위게임" 분야의 소프트웨어, 무기효과도나 운용전술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는 민용 기술쪽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운영기술

주요 무기체계를 획득시 획득비 못지않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운영 유지비이다. 예를들어 항공기의 수명주기 비용중 획득비는 30% 수준인데 반하여 운영유지비는 70%에 이르고 있다(그림.9). 따라서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유지비의 절감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이다.

공군력 운용의 근간이 되는 항공기의 운영기술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기체수명관리 기술과 항공전자장비의 정비/개량 기술 분야이다. 먼저 기체 수명관리 기술은 기체의 수명을 판단하고, 취약부위를 사전에 예측/발견하여 기체를 수리하고 수명을 보장하는 분야로서 이 기술의 상당부분은 국내 항공산업체에서 축적하고 발전시켜할 분야이다.

항공전자 장비의 정비/개량 기술은 운영비 절감에 가장 효과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항공기가 현대화될수록 항공기 전체가격에서 항공전자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첨단 전투기의 경우 50%까지 육박), 항공전자 장비의 수명주기가 기체에 비해 매우 짧아 기체 수명기간 내에 수차례의 장비 개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항공전자장비의 소프트웨어에는 국가적인 비밀을 요하는 작전운영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자국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전자 장비 정비/개량에 대한 국내 물량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소요분석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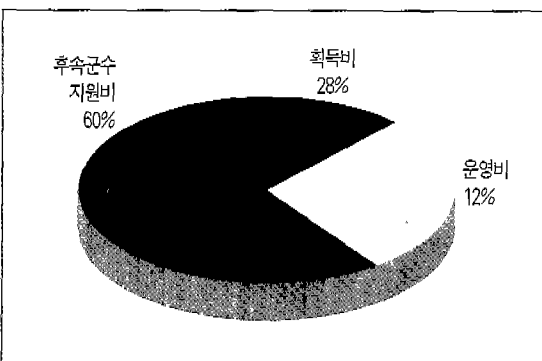
이제까지 국내의 항공기 개발 사업은 계획 시기부터 길어야 10년 내외의 단기적인 소요에만 급급하여 사업의 경제성과 투자 효과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도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2050년까지의 항공우주분

야는 군소요만도 10년마다 200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기술의 보유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기술 측면의 소요도 만만치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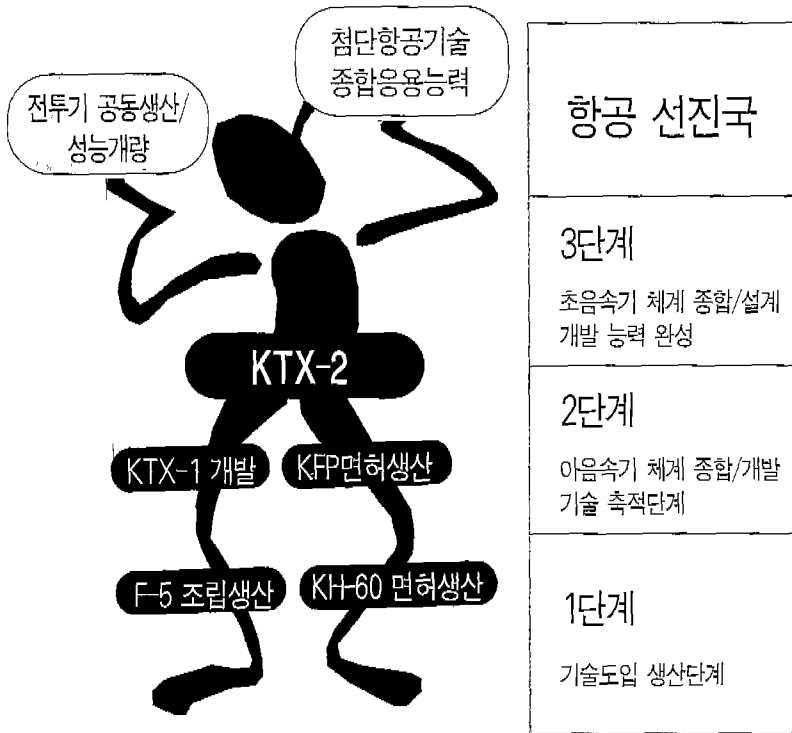
양이다. 여기에다 민수용의 소요, 특히 통일후 상당량의 신규소요가 예상되는 소형 여객기 등을 포함한다면 순수 국내물량만으로도 항공기 개발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선진국

이제 문제는 이러한 항공우주분야의 국내소요를, 국내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간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F-5 계열의 전투기인 제공호에 대한 조립생산을 시작으로 MD-500, UH-60, KFP 등 기술도입 생산 수준의 획득방법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행히 현재 마무리 단계인 공군의 기본훈련기 KTX-1의 개발을 지속 수행하면서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의 전체 개발주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체득하게 되었으며, 최근 공군의 고등훈련기인 KTX-2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면서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개발경험을 축적해가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상 개발 항공기 자체만의 경제성만을 따지는 우를 반복하지 않는다. KTX-1&2의 개발을 통하여 미래의 더 많은 항공기 소요에 대한 경제적이고도



〈그림 9〉 항공기 수명주기 비용



〈그림 10〉 국내 항공산업의 허리로서의 KTX-2 개발사업

효율적인 획득방법이 가능함을 깨닫기 때문이다(그림 10).

따라서 자체에 좀더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소요제기와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확보 및 개발정책이 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그림.8)에서 보았듯이, 2000년대 초반에 상당량의 항공기 신규소요가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의 조기수립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요제기 부서와 국내 항공우주산업체들을 연결하고, 정책을 수립/조정/통제하는 정부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항

공정의 신설이나 항공우주산업체 단일법인 설립 움직임 등은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라 사료된다.

5. 결론

최근 국내의 항공우주산업은 KTX-1개발에 이은 KTX-2 개발의 본격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KTX-2 재추진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으나, 이러한 진통과정을 통하여 국내 항공우주인들은 항공우주산업의 실체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하는 계

기를 갖게 되었다. 개발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소요가 확실한 훈련기 개발을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항공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당연하고 정상적인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이제 도약을 위한 정상체도에 진입했다 할 수 있다.

21세기의 한국공군이 추구하는 전략형 공군력은,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이내로, 2050년까지의 항공기 및 위성체계 그리고 관련기술 소요 등을 종합해본 결과 국가적인 개발정책의 여하에 따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전략형 공군의 건설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최선의 방안은 정부와 소요군 그리고 산업체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장기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함으로써, 이제 정상체도에 진입한 국내 항공우주 산업이 힘차게 달려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긴 레일을 깔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일원이자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필자의 소견이다.